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손주*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 Marie (온타리오주)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2017. 7. 9(일) ~ 7. 30(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알고마대학교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수세인트마리'라는 도시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또한 수세인트마리는 미국 국경과 접하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건너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수세인트마리는 온타리오 주의 대도시인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한국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환승하여 캐나다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수세인트마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p> <p>알고마대학교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작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받는 건물에 들어가면 'speak easy'라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 이곳에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먹거나 특별 활동 진행 전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학생들은 방학 중이어서 볼 일은 없이 학교도 조용하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일본인, 중국인, 콜롬비아인 등)을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speak easy에서 조금만 더 가면 Tim Hortons라는 카페가 있지만 방학 중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ESL office는 저희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려는 선생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일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저희 밖에 없고 전체적으로는 일본인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자동적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p> <p>학교 건물 중에는 헬스장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p>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p>저희는 약간의 테스트를 통하여 Advanced와 Intermediate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주 중에 2주 동안은 콜롬비아 학생들과 타이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도착하자 홈스테이 가족의 집으로 이동하여 짐을 간단하게 풀고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부터 프로그램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날엔 단기어학연수 담당자분들을 만나고 기본적인 소개와 건물 소개 등을 받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전반적인 부분과 마지막으로 버스로 등하교 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때 잘 숙지해두면 나중에 버스에서 잘못 내려서 많이 걸어오는 일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p> <p>본격적인 수업은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p> <p>첫째주에는 다른 특별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지역축제도 있어서 자원봉사를 가거나 전통 춤 추기, 딸기농장체험 등을 참여합니다.</p> <p>단기 어학 연수 기간 동안 총 네 분의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p> <p>Pronunciation and Vocabulary Building : Andrea 선생님 Reading : Julia 선생님 Public Speaking and Technology : Darren 선생님 Grammar : Ben 선생님</p> <p>수업은 3주 내내 강의실에서 진행되지만 Public Speaking and Technology는 주로 컴퓨터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수업마다 과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엔 WORD파일로 memory book 만들기가 있습니다. A4 사이즈로 두 장 정도로 그 동안의 추억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예쁘게 꾸미면 됩니다. 이 memory book은 다 완성되고 졸업식 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제가 알고마대학교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가 알차고 유익한 activity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첫 주부터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화요일에 딸기농장 체험을 갔었습니다. 딸기는 따는 만큼 파운드를 재서 각자 돈을 내고 사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따는 중간에 한 두 개씩 먹어도 좋아요. 사고 싶지 않으면 안 따도 됩니다. 수요일에는 알고마대학의 역사에 대한 교육과 오후에는 St.Joseph Island에 가서 루니 동전을 보고 바로 이동하여 AlgomaTrad Dance를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 금, 토요일에는 ROTARYFEST로 지역축제가 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은 수업 후 자원봉사 및 Whitefish Island 산책 그리고 축제를 즐겼고 토요일에는 Colour Blast를 즐깁니다. 이 때 버리는 바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의랑 선글라스는 지급하기 때문입니다.</p>

	<p>둘째 주 목요일에는 Canadian Bushplane Heritage Centre에 가서 산불을 끄기 위한 소방 비행기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Tim Horton's에 가서 커피와 도넛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금요일에는 Pathway라는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은퇴 후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상이었고 한국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Agawa rock과 슈퍼리어호로 놀러가는 일정이 있는데 저는 중간에 캠핑 일정이 있어서 Agawa rock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Agawa rock에서는 바위표면에 그림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리어호는 오대 호 중 가장 큰 호수로 알려져있습니다. 솔직히 호수라고 해도 바다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물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p> <p>셋째 주 수요일에는 Jade Wellness라는 요가센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는 활동과 어린이와 서로 짝을 맞추어 간단한 소개와 서로의 좋아하는 분야에 대하여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만 표를 사줘 피아노 연주회에서 아름다운 노래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에 비하면 더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해는 따갑지만 해가 지면 서늘해지는 날씨에 비가 오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티셔츠 반바지도 좋지만 혹시 예비용으로 맨투맨이나 후드를 챙기는 것은 좋습니다. 전 후드를 안 챙겼다가 결국 학교에서 샀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해가 정말 길어요. 밤 9시가 저녁 6시에서 7시 같았어요. 그 정도로 하루가 길어요. 그리고 치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한번은 길을 잃었을 때 아무나 붙잡고 길을 물었는데 구글 지도까지 틀어서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택시를 처음 잡는 데 잘 몰라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는 데 바로 도와줄 정도였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제가 3주를 보냈던 홈스테이 가족은 mom 그리고 제게는 남동생이자 mom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홈스테이 유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식사는 홈스테이 밥을 먹을</p>

	<p>거면 6시 30분 전으로 집에 가는 것이 좋고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준비를 안 합니다. 엄마하고는 여러 대화를 해서 친밀감이나 일상 영어 대화를 하는 데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홈스테이 엄마 역시 기분 좋게 항상 대화를 하실 것입니다. 방에서 쉴 때는 문을 열어둘 생각이었는데 고양이가 털이 제 옷에 붙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방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문을 닫아두면 저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별다른 규칙은 없었습니다. 정말 자식 돌봐주시듯이 잘 챙겨주십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집에서 아침밥부터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요플레, 우유, 주스는 물론 과자나 씨리얼바, 아이스크림 등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은 음식을 점심으로 챙겨갈 때도 있지만 챙겨갈 음식이 없으면 샌드위치랑 과자, 주스 등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녁 메뉴는 한국과는 다른 쌀밥, 국수, 고기류 야채 등이었습니다. 매일 서구적인 식사를 했고 확실히 밀가루나 버터의 영향인건지 피부랑 체중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못 먹는 거 없이 다 맛있게 먹었지만 버터가 많은 음식은 조금 괴로웠습니다. 한국밥이 그리울 때는 라면을 먹기도 했습니다.</p> <p>외국 음식이 잘 안 맞으면 한국 음식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 김, 햇반, 고추장, 카레 등)</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집에서는 학교까지 버스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첫 날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법과 어떤 버스를 타야하는 지 가르쳐주었습니다. 서울과는 다르게 버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시간을 준수하는 게 좋습니다. 버스카드는 대학교에서 지급해줍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30,3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779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간식, 쇼핑 등...	900,000	세금 포함
합계	2,762,079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옷을 챙길 때 후드나 맨투맨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여름이겠지 하고 준비 안 해갔다가 결국 급하게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해는 따갑습니다. 선크림이 진짜 필수입니다.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탭니다. 그리고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는 고추장이나 라면 정도를 챙기는 게 좋고 캐리어는 두 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내다 보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게 되는 데 부피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캐리어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은 넉넉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확실히 새롭고 잊지 못 할 추억에 남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아주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특별활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영어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3주였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딸기농장입니다.
딸기는 따고 무게를 재서 살 수 있습니다.



St.Joseph Island에서 AlgomaTrad Dance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춤추며 즐겼습니다.



ROTARYFEST로 지역축제에서 저희는 러버덕도 봤고 아이들에게 머리 닿아주기나 그림 그리는 것 보조 등을 하였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밤에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양로원과 요가센터를 방문하여 한국 알리는 특별활동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는 Agawa rock과 밑에는 Whitefish Island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림문자들을 보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